◈며느리 권씨 열전 30-2

문무겸전의 대장부 '임형수'의 어머니 권씨 (추밀공파 21世 , 權錫의 딸)



사약 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기개

임형수의 이름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1547년의 최후이다.

1545년 을사사화 이후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다가 파직된 그는 1547년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윤원형 일파에 의해 대윤 윤임의 일파로 몰렸다. 결국 나주에서 사사되었다. 소인배 윤원형이 평소 임형수를 고깝게 보던 그가 무고하게 엮어서 죽인 것이다.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은 1547년(명종 2) 조선 시대에 양재역(지금의 서울 양재동 일대)의 역관(驛館) 벽에 정권을 비판하는 익명의 벽보(壁書)가 붙은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소윤(小尹) 일파가 사림(士林)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연장선에서 크게 확대·조작한 옥사(獄事)로 평가된다.

벽보에는 "위로는 임금이 어리고 아래로는 신하가 강하다(上幼下強)"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는 당시 12세의 어린 명종을 대신해 외척인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권력을 농단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정치적 배경은 명종 즉위 직후 발생한 을사사화로 윤원형 등 소윤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으나, 사림 세력에 대한 탄압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확대와 조작으로 벽서 사건이 보고되자, 윤원형은 이를 사림 세력이 역모를 꾸민 증거로 몰아갔다. 이에 따라 이언적(李彦迪), 유희춘(柳希春) 등 수많은 사림 인사들이 연루되어 처형되거나 유배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결과와 영향은 이 사건으로 사림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고, 윤원형 일파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다만 훗날 선조 대에 이르러 이 사건은 무고한 옥사로 인정되어 관련자들이 신원(伸冤)되었다.

당시 남명 조식의 상소문은 ' "자전(慈殿, 문정왕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지만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으시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한낱 외로운 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백 가지의 천재와 억만 갈래의 인심을 무엇으로 감당해 내며 무엇으로 수습하겠습니까?"라 했지만 겨우 무사했고, 위 벽서에 비해서도 과격했다. 양재역 벽서사건은 단순한 벽보 사건이 아니라, 16세기 중반 조선 조정에서 권력 투쟁의 도구로 악용되어 사림 세력을 탄압한 대표적인 정치적 옥사이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욱 인상적

실록 계열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임형수는 죽음을 앞두고 부모에게 작별하고 아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으며, 의금부 서리를 대하는 순간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천지 신기가 밝게 내려다보는 곳에서 죽겠다"는 취지의 태도는 그의 강직한 성품을 상징한다.

여기에 후대 야사에서 유명해진 것이 이른바 '사약 16잔'이다.

"유분록" 계열 전승에서는 독주를 열여섯 사발이나 마셨는데도 죽지 않아 두 사발을 더 마시게 했고, 그래도 죽지 않자 결국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한다. 다만 여기서 역사적 사실과 후대 일화를 구분해야 한다.

임형수가 사사되었다는 사실과 그의 의연한 최후는 역사 기록으로 확인되지만, '16잔'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후대 전승이다.

따라서 임형수의 기개를 설명하는 대표 일화로 소개하되, 이를 실록에 기록된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 말이 왜 인구에 회자 되는 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침교수(木枕絞首)'라는 마지막 해학

임형수의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목침교수'이다.

송시열의 "송자대전"에 전하는 일화에 따르면, 임형수는 사약을 받는 대신 목을 매어 죽게 해 달라고 형관에게 청했다. 허락을 받자 방에 들어가 벽에 구멍을 뚫고 밖의 나졸들에게 끈을 잡아당기게 하였다.

그런데 나졸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벽에는 목침 하나만 걸려 있고 임형수는 방 한구석에 누워 웃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평생 해학을 좋아했으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해 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결국 실제로 목을 매어 죽었다고 전한다. 이 일화에서 '목침교수(木枕絞首)'라는 표현이 비롯되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의 형 집행 과정을 입증하는 기록이라기보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임형수의 호탕한 인물상을 후대가 상징적으로 기억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기개는 친가 평택 임씨, 비조 비간(比干)의 기개, 무장인 아버지, 외가 권씨의 증조부부터 무장으로서의 내력, 그 자신 활을 잘쏘는 문무의 체질에다가 선비의 기질이 그를 그토록 강인하게 했을 것이다.

그 4대손은 희대의 명당 판교리에 잠든 무장 청난공신 3등·평성군 임득의(林得義) 이다. 그리고 그 계통은 다르나 임경업(林慶業)도 같은 일가이다.

문무겸전의 기질과 안동권씨 외가

임형수에게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문(文)과 무(武)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한 문신이었지만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으며, 북방의 회령판관을 지낼 때에는 호인들을 진무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동시에 호당에서 학문을 닦고 이황·김인후와 교유한 문장가였다.

이러한 성격을 그의 양친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버지 임준은 북병사를 지낸 무장이다. 어머니는 안동권씨 권석의 딸이다. 그리고 권석의 선대에는 권복·권공 등 무관적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보인다.

따라서 임형수의 문무겸전과 호걸적 기질을 오로지 외가의 혈통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나친 해석이다. 그러나 그의 부계와 모계 모두에서 무관적 전통과 기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특히 외조부 권석에서 권팽, 권공, 권복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임형수의 외가가 단순한 문인 가문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어머니 권씨를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

임형수의 이야기는 대체로 '호걸 선비 임형수'에 집중된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의 어머니인 안동권씨가 있었다. 권석의 딸인 권씨는 북병사 임준과 혼인하여 임형수를 낳았다. 곧 안동권씨 외가와 평택임씨 친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문무겸전의 임형수라는 인물이 태어난 것이다.

그의 삶을 보면 문장가의 면모와 무장의 기질이 함께 나타난다. 정치적 권세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고, 풍랑 앞에서도 태연했으며, 죽음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임형수의 기질을 설명할 때 외조부 권석과 그 선대의 계통을 함께 살피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다만 역사 연구에서는 이를 '유전적 기질'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가문이 형성해 온 무관적 전통과 사회적 환경, 교육, 부친 임준의 무장 경력, 그리고 임형수 자신의 천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광주 등림사'는 조선 중기 문신, 금호 임형수와 송파 임식, 관해 임회를 배향하는 평택 임씨의 사우다.

✣ 권씨문집 시리즈 1

한류문화원 권오철

『진사공실록進士公實錄』 全

— 저자 진사 권백경(權百經, 추밀공파 26世), 발행인 권희철(權熙喆, 8世孫)

조선시대 문집 한 권은 단순한 옛 책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와 생각을 보존하는 동시에, 한 가문의 학문과 문화, 한 시대의 사회상과 정신세계를 후대에 전하는 작은 역사서이다. 특히 문집의 원본이나 후대에 간행된 실기 한 권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안동권씨 문헌을 살펴보면 수많은 선조의 문집과 행장·묘표·신도비·족보·고문서 등이 축적되어 있다. 앞으로 이를 하나씩 소개하는 '권씨문집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진사공실록』, 곧 진사공 권백경의 실기이다.

책 자체는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얇고 소박하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는 결코 얇지 않다.

조선시대 문집 한 권의 의미

조선시대 선비에게 문집은 자신의 글을 모아 놓은 단순한 저작집이 아니었다. 시·부·책·서간·행장·묘표·제문·만사 등은 개인의 문학적 성취를 넘어 당시의 학문과 정치, 사회관계, 인물평가를 보여주는 역사 자료였다.

특히 한 인물의 문집이 후손에 의해 실기로 정리되면 그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간다.

첫째, 개인의 기록이다. 한 인물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어떤 글을 남겼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가문의 기록이다. 선조의 계보와 행적, 묘소, 혼인관계, 후손의 계승 과정 등이 함께 기록된다.

셋째, 지역과 시대의 기록이다. 당대의 인물들과 주고받은 시문, 과거시험의 내용, 정치와 학문에 관한 책문, 제문과 만시 등은 그 시대의 문화사를 복원하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문집 한 권은 분량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몇 백 쪽의 책보다 오히려 몇 십 쪽의 기록 하나가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다른 자료에서는 찾기 어려운 인물의 생애와 사상이 문집에 남아 있다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

『進士公實錄』을 간행한 후손의 공로

이번에 주목하는 『進士公實錄』은 진사공 권백경(權百經)의 시문과 관련 기록을 후대에 모아 간행한 책이다.

오늘날 책을 인쇄하는 일은 과거에 비하면 매우 쉬워졌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집 간행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원고를 수집하고, 글자를 교정하고, 목판 또는 활자 인쇄를 거치며, 여러 부를 제작하고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이 정도 1만4천자 분량의 문집 200권을 간행하는 데 거의 쌀 40석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오늘날 단순한 쌀값으로 환산하면 약 1,2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지만, 당시의 경제적 가치와 노동력·인쇄비까지 고려하면 군수 연봉 정도였으니 현재 가치로 보면 1억원대에 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조의 글을 보존하기 위해 사재와 시간을 들여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후손으로서 최고의 효행이요, 국가 문화발전 애국하는 것이니 충효의 실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1989년판 『進士公實記』를 남긴 권희철(權熙喆. 권백경의 8세손)의 공로는 특별하다.

그는 후손으로서 이미 오래전에 흩어지고 소실될 수도 있었던 선조의 글과 행적을 수습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문집을 쓴 사람의 공과 그것을 찾아내고 정리하여 후대에 전한 사람의 공은 서로 다른 종류의 공로이다. 특히 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오늘날 안동권씨 문집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도, 한 권 한 권이 처음 만들어졌던 당시에는 모두 누군가의 정성과 비용, 책임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히 '얇은 옛 책'이 아니라 한 가문의 기억을 지켜낸 문화유산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2026 병오년 제12회 부호장공파 파조 추향제 봉행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헌종)가 주최하는 "2026 병오년 제12회 부호장공파 파조 추향제"가 10월 10일(음력 8월 30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봉행(奉行)하였다. 이날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이다.

참제관(參祭官)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원정 방에서 권중대 집필자가 분정례(分定禮)을 시작, 초헌관 권영건(權寧健), 아헌관 권오기(權五基), 종헌관 권영문(權寧文), 축관 권태봉(權泰鳳), 집례 권중대(權重大)가 각각 담당하였다.

다섯 헌관(獻冠)은 검은색 제복(祭服)에 갓을, 고문과 회장은 도포(道袍)와 유건(儒巾)을, 일반 참제관들은 평상복에 유건을 각각 쓰고 1시간 30분에 걸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권중대 집례는 제례의 순서에 따라 홀기(笏記)를 창홀(唱笏), 세 헌관들은 차례로 분향 재배(再拜) 하였다.

추향제가 끝나자 권영건 도유사(都有司)는 인사말을 통해 "추수기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파조 추향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추향을 준비하느라 제례위원들이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추향제가 끝나자 시원한 일원정 마루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었다.

점심식사가 끝난 후 권영건 도유사는 내년 2027년 도유사로 선임된 권오기 헌관에게 망기(望記)를 전달했다. 이 망기 집필자는 권중대 부회장이 썼다.

권영건 보도부장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제5장 내가 의사다

6. 노폐물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난다. 몸 안 에는 기와 혈, 공기와 물이 순환을 하는데 장애를 받으면 곧 이것이 병이다. 인체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순환과 대사작용을 함으로써 몸 안에도 이끼와 먼지와도 같은 노폐물이 쌓인다.

관심이 없이 살아가니 그렇지, 이 쌓인 노폐물은 누가 만져도 다 만져지고 눈으로도 확인 할 수가 있다. 노폐물을 만져 보고 성인병을 진단한다.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은 대추혈(大椎血) 부근에 노폐물이 쌓여 있고 심하면 뇌출혈 중풍이 된다. 심장병 환자는 환자는 단중(端重) 주위에 노폐물이 쌓여 있다. 호흡이나 소화에도 당연히 지장을 가져 오게 된다. 디스크를 앓는 사람은 허리에 노폐물이 쌓여 있고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무릎에 서 노폐물이 잡혀 진다. 배꼽 아래의 하복부에서 노폐물이 만져지면 신장에 이상이 있고 상복부가 그러하면 위가 좋지 않는 것이다.

견갑골이나 목 부위에도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데 이는 혈압, 어깨, 심장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척추 좌우에 방광 경락을 따라서도 노폐물이 쌓이는데 해당 혈의 지배 부위에 따라 이상이 온다.

노폐물을 어혈이라 하기도 하고 적이라고도 하며 취라고 한다. 자리 잡고 굳어 있으면 적이라고 하고, 돌아 다니는 것을 취라고 한다. 이는 돌처럼 딱딱하기도 하고 연골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어떤 형태이든 이것들은 체내에 쌓인 쓰레기들이다.

이 노페물은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고 방을 청소하듯이 자주 청소를 해 주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처리 방법은 우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식사법을 꼭 지키면서 순수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족탕을 하면 단시간 안에 깨끗이 청소가 되어 질 것이다.

7. 냉기(冷氣)

지혜란 만물(자연)의 이치를 있는 대로 보고 깨닫는 것이다. 밤은 어둡고 차다. 바위도 어둡고 차다. 바위도 차고 어두운 색깔이며 차다. 종양도 차고 딱딱하다. 어둠도 바위도 종양도 다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암이다. 암(癌), 암(岩), 암(暗)은 동성상응이다.

암이란 차가우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기혈이 흐르지 못하고 그래서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병은 냉기에서 시작된다. 냉기가 있으면 순환이 일어나지 못하고 순환이 안 되는 곳에는 반드시 노폐물이 쌓여서 굳어 진다. 다시 말해서 냉기와 순환장애, 이것은 거의 공식과도 같은 것이다.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 간질, 간장질환, 디스크, 부인병, 염증, 종양 이 수도 없이 이름 붙여진 질병의 가장 근본 원인은 차가움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몸은 냉해지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에 온 것 들이다.

겨울에 추우면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해주어야 하는데 맵시를 내느라 스타킹 하나로 버티어 내니 하체가 차게 되므로 남성보다 몸이 냉해지는 이유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몸이 차지는 이유는 여름이나 겨울에도 늘 냉장된 음식을 선호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아이스크림과 청량음료만 찾으니 몸이 찰 수밖에 없고 집이나 일터에서 냉방장치 속에서 살아가니 모이 냉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이 답답하니 시원하고 찬 것을 찾게 되나 이것이 몸에는 아주 좋지를 않음을 알아야 한다. 더울 대는 더워야 하고 추울 대는 추워야 하는 것이 자연의 조화에 따른 생체리듬인데 현대인들은 거구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열 받아서 몸이 달아 죽겠는데 차고 냉하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냉증이다. 수승화강이란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화기는 아래로 내려와야 신체가 정상인데 아래는 차고 화기는 모두 상체로 몰리는 현상이 열 받은 상태이다.

뇌경색 중풍 등도 하체가 차고 약해진 병이다.

수화기재 도통이라 했다. 인생 전반에 걸친 철학적인 말이지만 환자에게 수기(水氣)를 올려 주고 화기를 내려 줄 수 있으면 명의이다.

몸이 냉해지는 상식적인 이유를 말했지만 그 결정적인 요인은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대문이다. 하루 세끼 식사 때, 우리는 국, 찌게,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게다가 커피, 청량음료, 맥주 등을 다량으로 섭취하는데 문제가 있다. 혹자는 인체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라 하지만.. 많아 넘침은 모자람 보다 좋지 않다.

정정보도

발행호수	지면	정전 전	정정 후
2026년 10월호 (제616호)	제1면	권기호(36세, 복야, 전 복야공파회장)	권기호(36세, 좌윤공파, 한신장학재단 이사장)
7, 8, 10월호	제5면 광고 서울산악회 제363차, 364차, 366차 정기산행	제363차, 364차, 366차 정기산행 정기총회 장소: 점심 도시락, 충분한 물, 간식 등	준비물: 점심 도시락, 충분한 물, 간식 등